

박물관 레스토랑 킨레이

1930년에 문을 연 나가사키의 가장 오래된 서양식 레스토랑중의 하나입니다.

골동품 가구들로 둘러싸여 전통 나가사키 요리에서부터 저녁 풀코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각층 평면도



박물관 가게

박물관 가게는 1층의 입구 홀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교류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독특한 박물관 상품, 책, 전통 공예품과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내

-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 노면전차 (사쿠라마치)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 노면전차 (시청) 역에서 하차하여 7분.
 - 노선버스 (역사문화박물관)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 3분.
-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 나가사키 자동차도 다라미IC에서 나가사키바이패스(니시아마터널)경유, 스와신사 방향으로 30분.

■ 관람 시간 / (4월~11월)8:30~19:00(12월~3월)8:30~19:00

■ 휴관일 / 매월 제1·제3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승용차 62대와 버스 5대까지 수용 가능



長崎歴史文化博物館
Nagasaki Museum of History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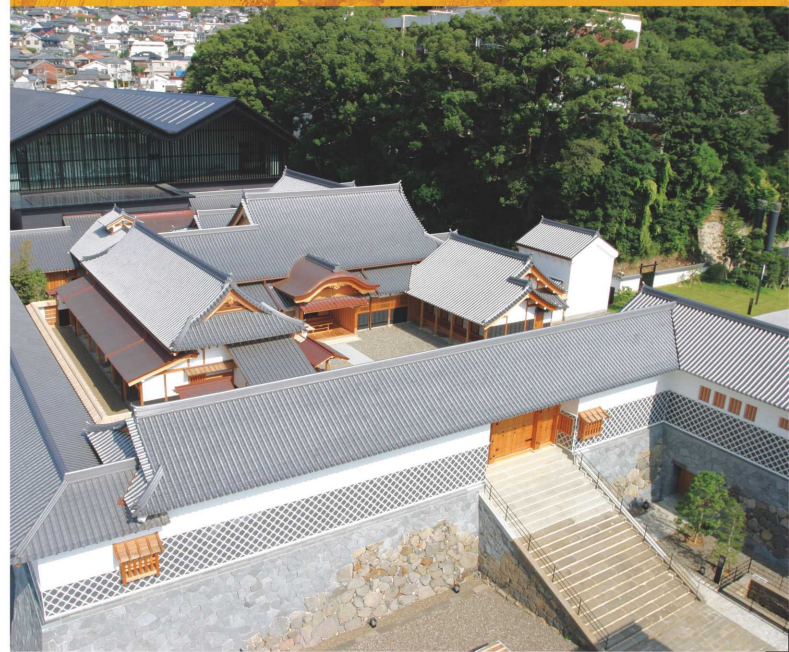
TEL095-818-8366 FAX 095-818-8407
☎850-0007 나가사키시 다테야마 1초메 1번1호
<http://www.nmhc.jp>

2024.03



長崎歴史文化博物館
Nagasaki Museum of History and Culture

정보 가이드



Nagasaki Museum of History and Culture

역사문화 전시 존

나가사키의 해외교류사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

서양과의 만남

~남만무역과 그리스도교~

16세기 중기부터 서양과의 무역 활동이 성행하면서 그리스도교의 포교도 행하여졌다. 그 후 막부(幕府)는 그리스도교를 금지하고 무역항도 제한하였다. 나가사키는 서양을 향해 열린 항구로서 번성하였다.



조선과의 교류

~조선 통신사와 쓰시마(對馬)~

에도시대, 일본과 조선은 정식국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 대륙의 정보와 문물이 유입되었고, 양국간 외교나 무역은 중세 이래로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맺어 온 쓰시마번(對馬藩)이 담당하였다.

나가사키 무역

~중국선박(唐船), 화란(네덜란드)선박, 그리고 왕래하는 상품~

나가사키는 중국선박(唐船)이나 화란선박들과 무역을 하였다. 비단제품과 설탕, 약품 등의 수입품은 나가사키로부터 일본 전역에 유통되었고 금·은·구리와 해산물, 도자기 등의 일본제품은 중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중국과의 교류

~중국식 절(唐寺)과 중국인(唐人) 거주지구~



나가사키는 동아시아 무역을 통해서 번창하였다. 나가사키의 중국인들은 중국식 절(唐寺)을 창건하였다. 막부(幕府)가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중국인들은 중국인 거주지구에서 생활하였다. 중국식 절(唐寺)과 중국인 거주지구는 중국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하였다.

나가사키의 황금기를 확인해보세요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은 일본의 국제 교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획된 소수의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은 일본이 쇄국 정책을 유지했던 기간에 외국에 개방한 유일한 관문이었던 나가사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광범위한 역사 기록과 미술품, 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부교우쇼(에도 시대 중앙정부의 지방관청)의 일부가 역사 자료를 근거로 충실하게 재건되어 방문객들은 일본 봉건시대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생활

~나가사키의 변성과 도시의 구조~

나가사키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무역이나 행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1663년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여 시 전체가 타버렸으며, 그 후 나가사키의 시가지 생김새는 크게 변화하였다.



나가사키의 미술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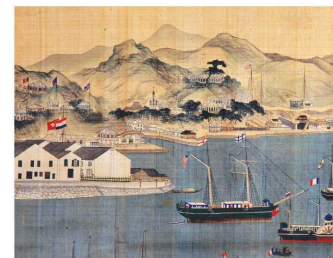
~교류가 낳은 이국정취~

국제무역도시 나가사키에서는 중국이나 유럽의 화품을 받아들인 회화가 그려졌으며 국내외로부터의 주문을 받아 자개세공 등의 호화로운 공예품들이 만들어졌다.

화란(네덜란드)과의 교류

~데지마(出島)와 난학(蘭學)~

데지마(出島)는 에도시대 일본과 유럽 사이의 교류의 창구가 된 인공섬이었다. 데지마(出島)를 통한 다양한 문물·정보의 교환에는 화란의 상품교역관원(商館員)들이나 화란어통역관(通詞)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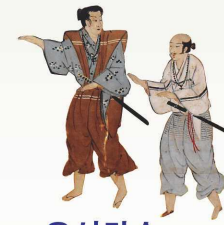
근대화의 선구·나가사키

~나가사키에서 발신된 서양의 지식과 기술~

1859년 서양 5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함으로서 시작된 '안세이(安政) 개항' 이후 구미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깊어졌으며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이 일본에 도입되었다. 그 창구가 된 곳이 나가사키였다. 바로 이 나가사키에서 막말과 메이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나가사키 지역의 일본 통치

나가사키 치안 판사 사무소의 복원



오시라스

오시라스는 부교라 불리우는 나가사키 치안 판사가 재판을 실행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도안과 고고학 발굴지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옛 시대의 재판은 어떠하였는지 보여주는 연극이 공연됩니다. 밀수범이 재판에 처하는 장면은 독특합니다.



쇼인실

나가사키 치안 판사 사무소의 거실. 치안 판사는 여기에서 고관들을 맞이했었습니다.



타이멘쇼 취조실

밀수범의 취조를 포함하는 치안 판사의 임무와 수입품의 조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가사키의 일본 통치 극장

고화질 텔레비전 이미지로 나가사키 기독교 신자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부교 전시실

이 갤러리에서는 최근의 역사 발굴자료와 문서로 치안 판사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합니다.